

올해 9월 전남광주 평년보다 덥고 건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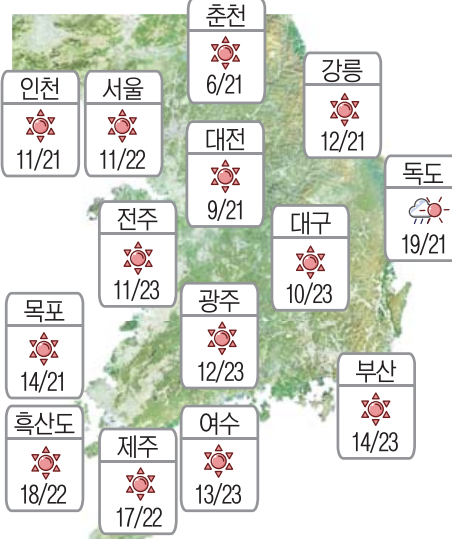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 06:31 해질 18:10 🌙달돋 01:32 달질 15:44

●광주·전남 날씨

광주	맑음	12/23	장성	맑음	10/22
목포	맑음	14/21	보성	맑음	8/21
여수	맑음	13/23	함평	맑음	11/22
나주	맑음	10/22	순천	맑음	12/23
완도	맑음	13/23	영광	맑음	12/21
구례	맑음	10/22	진도	맑음	13/21
강진	맑음	11/22	흑산도	맑음	18/22
해남	맑음	10/22	고흥	맑음	11/23
광양	맑음	12/24	담양	맑음	10/22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1.5-3.0	0.5-1.5
남해 앞바다	1.5-3.0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0.5-1.5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1.5-2.5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1.5-2.5	1.5-2.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10:16	03:57	여수	05:58	00:07	06:37
	23:15	15:53		18:27	11:46	19:15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80

세 차 50

감기 조심해요

차 내부청진이 좋아요

빨래 70

운동 40

실외건조 좋아요

운동 후 체온 유의

●주간 날씨

7일(수)	8일(목)	9일(금)
☀(12/24) 흐려져 비	☀(12/26) 흐려져 비	☀(12/28) 흐려져 비
10일(토)	11일(일)	12일(월)
☀(14/26) 흐려져 비	☀(15/27) 흐려져 비	☀(14/28) 흐려져 비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기상청 기후 특성 발표

월 평균기온 23.8도...역대 5위

이동성고기압 등 영향 강수량 ↓

“이례적 수치”...기상가뭄도 多

올해 9월 전남광주는 6년 연속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인 가운데 한달 간 내린 비의 양은 42mm로 그치며 기상가뭄 현상이 나타났다.

5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9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광주 지역 평균기온은 23.8도(역대 5위)로 평년인 22도보다 1.8도 높게 나타났다. 2020년대에 들어 6년 연속 9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

이는 8월 하순에 우리나라로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이 9월 초까지 이어지며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 시기 전남광주 일부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이어졌다.

중순과 하순에는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성순환이 강화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됐다. 9-17일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며 대체로 평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졌으나, 19-24일에는 최고기온이 평년 대비 크게 올라 전남광주 대부분 지역에서 이상고온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을무 수확 분주한 들녘

가을이 깊어가는 5일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영암군 들녘에서 농민들이 줄지어 늘어선 이랑 사이로 가을무를 수확하며 분주한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조영권 기자

강수량은 42mm로 평년 내린 156mm 대비 27.5% 수준으로 역대 8번째로 가장 적었다.

이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9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았던 데 비해 이례적으로 적은 수치라는 것이 광주기상청의 설명이다.

이동성고기압의 영향과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 유입 등으로 강수량 또한 매우 적게 나타나며 따라 곳곳에서 기상가뭄 현상이 발생했다. 한달 간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역대 8번째로 가장 긴 14.3일로 관측됐다.

정현숙 광주지방기상청장은 “최근 전남광주에서는 6년 연속 평년보다 높은 평균기온을 기록하는 등 고온 경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급격한 기온 변화가 나타나고 강수량도 매우 적게 나타나는 등 기후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기후 현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형우 기자

광산구,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박차

65세 미만 장애인 1천200여명 대상

병원 동행·주거복지 등 13종 서비스

복지관 등 민·관 협력사업 실효성 ↑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광산구가 지역 장애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를 안착시키고 있다.

5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3월 시범 도입한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9월부터 본사업으로 확대 시행하고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복합 지원이 시급한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광산구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필요한 지적·뇌병변 심한 장애인이 1천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산구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관계자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상담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광산구는 전국 공통 서비스인 건강 주치의, 재활, 활동 지원 외에도 광산구만의 특화 서비스인 병원 동행 ‘휴블런스’, 사회적 처방, 주거복지 ‘중간집’ 등 9대 분야 13종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시범 사업 기간 적극 발굴을 통해 13명

의 대상자에게 67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본사업 확대에 맞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등과 조기 발굴망을 구축하고 광주365재활병원 등 의료기관과의 서비스 연계도 활발히 논의 중이다.

또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 서비스 매뉴얼을 마련해 유관 기관과 공유했다. 지난달 17일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통합지원회의를 열고 지역 자원 연계 현황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돌봄콜(1660-2642)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영규 광산구청장은 “통합돌봄 성공은 지역 사회의 긴밀한 참여와 협력에 달려 있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숨은 지역 자원을 발굴해 장애인과 그 가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육근 기자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재검토 건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민선9기 출범 후 첫 건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개편방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5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재검토 건의문’을 통해 “기금 조성을 위해 내국세 일부를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보통교부세 총액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지방재정의 안정성은 물론 자율성과 예측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교부세는 주민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보장하고 지방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인 만큼, 정부가 강조해 온 지방 우대 재정, 지방 우선 정책, 재정분권 국정과제와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내 대표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운영중인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재정분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가시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서형우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광경과 건강한 먹거리가 풍부한

고흥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고흥군

광고문의 : 062)650-2099